제 8 회 유럽 한국어교육자 협회 워크숍 EAKLE 2020

날짜 : 2020 년 10 월 9 일~10 일

발표 논문 모음 5

- **일제 스케스테레 & 김훈태 : 한국어 명사의 라트비아어로의 올바른 전사에 대한 제언**

- **임현성 : 최신 언어 생활의 동향을 반영하기 위한 수업 방안**

- **정유선 :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data and students' reading and listening test outcomes**

한국어 명사의 라트비아어로의 올바른 전사에 대한 제언

-한국어와 라트비아어와 음성학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일제 스케스테레, 김훈태 - 라트비아 대학교

1. 들어가는 말

본 발표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한국어 명사를 라트비아어로 전사하는 데에 드러나는 문제 등을 살펴보고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는 데에 있다. 라트비아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지난 6-7 년 동안에 이 주제는 특히 중요해진 부분 중의 하나이다.

어떤 언어의 명사, 특히 고유명사를 라트비아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언어학자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한 일이다. 그리고 한국어와 같이 새로운 언어의 고유 명사를 라트비아어로 제대로 번역하는 것은 다른 언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갓이다. 라트비아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외국어의 고유명사를 라트비아어로 전사할 때에는 가능한 원래 발음에 가까워야 한다.

각각 다른 언어 계열과 뿌리를 가진 한국어와 라트비아어는, 특히 소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르다. 그러나 그 차이를 메워줄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으며 나머지는 결국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다. 외국어를 자국어로 전사를 하는 경우 모든 소리가 항상 정확한 등가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용인은 필요하며 한국어를 라트비어로 전사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두 언어가 가진 소리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고 그것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전사의 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그것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2. 한국어와 라트비어의 음성학정인 특징 비교

소리는 일반적으로 모음과 자음의 두 범주로 구분된다. 각각의 언어에 따라 약간의 변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어는 모음, 자음,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 있는데, 이 모음은 별개의 두 소리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소리를 낸다. 한국어도 같은 범주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하위 범주는 다르다. 이것이 이 각각의 언어를 음성학적으로 매우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다.

Aa	Āā	Bb	Cc	Čč	Dd	Dzdz	Dždž	Ee	Ēē	Ff	Gg
ā		bē	cē	čē	dē	dzē	džē	ē		ef	gē
[a]	[a:]	[b]	[t͡s]	[t͡ʃ]	[d]	[d͡z]	[d͡ʒ]	[ɛ, e]	[ɛ:, e:]	[f]	[g]
Ģģ	Hh	Ii	Īī	Jj	Kk	Ķķ	Ll	Ļļ	Mm	Nn	Ņņ
mīkstais gā	hā	ī		jot	kā	mīkstais kā	el	mīkstais el	em	en	mīkstais en
[ɟ]	[x]	[i]	[i:]	[j]	[k]	[c]	[l]	[ʎ]	[m]	[n]	[ɲ]
Oo	Pp	Rr	Ss	Šš	Tt	Uu	Ūū	Vv	Zz	Žž	
o	pē	er	es	eš	tē	ū		vē	zē	žē	
[uo]	[p]	[r]	[s]	[ʃ]	[t]	[u]	[u:]	[v]	[z]	[ʒ]	

이미지 1. 라트비아어의 알파벳

(1) 기본 자모(24자) = 자음(14자) + 모음(10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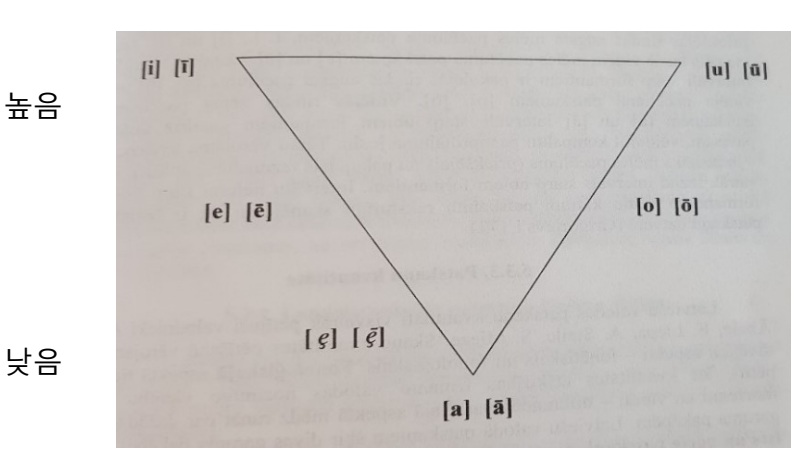
자음	글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
모음	글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이름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미지 2. 한국어의 알파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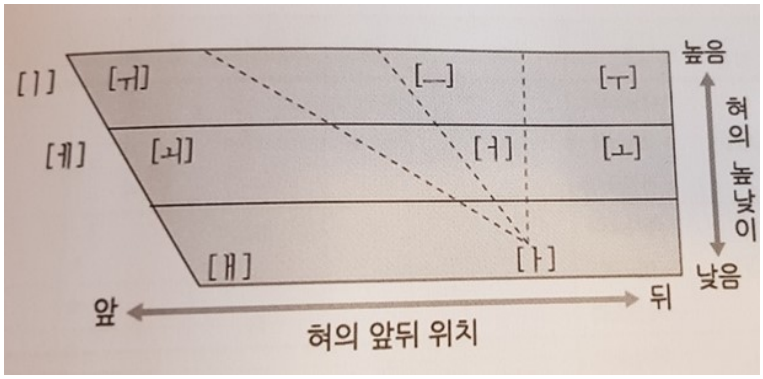
이미지 1 과 2 를 보면 두 언어에는 다른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모음과 자음이 모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1) 모음

모음은 입안에서 방해물이 없이 공기의 흐름에 의해 발생되는 소리다. 모음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동안 혓바닥의 수직 및 수평 위치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라트비아어의 12 개의 모음 소리는 이 원리에 따라 배치될 수 있다.



이미지 3. 혀의 위치에 따른 라트비아어의 모음



이미지 4. 혀의 위치에 따른 한국어의 모음

두 언어가 가진 공통된 모음은 ' **a/ㅏ, i/ㅣ, u/ㅜ, e/ㅔ, e/ㅐ**'[1]이다. 이들 소리들은 양 언어에서 분명하기 때문에 전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ㅗ'는 라트비아어 '**o**'와 일치하지만, 라트비아어의 다른 '**o**' 소리와 비슷한 'ㅓ'는 위의 이미지에서 약간 다른 위치에 존재한다. 전사의 목적상, 같은 글자 '**o**'를 사용할 수 있다. 흥미로운 예가 **'ㅡ'** 소리인데, 이 소리는 라트비아어 음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라트비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종종 러시아어 소리 '**ы**'과 비슷하다고 소개된다. 이 소리의 전사는 라트비아 학자들 사이에 공통된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는 논의 중의 하나이다. 일부 학자는 '**i**'를, 다른 학자는 '**u**'를 라트비아어에 대응하는 글자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번역 커뮤니티에 미친 러시아어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트비아어는 장음을 위한 별도의 글자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한국어에서 역시 소리의 연장이 일어나는 전사에 사용될 수 있다.

표 1. 한국어 모음의 라트비아어로의 전사

아	어	오	우	으	이	애	에
a	o	o	u/ū	u	i/ī	e/ē	e

2) 이중모음

라트비아어의 이중모음은 '**ai, au, ei, ui, iu, o [uo], oi, eu, ou**'이다**.** 이것들은 한 단어에서 같은 음절에 속하면 하나의 소리로 발음된다. 그러나, 별도의 음절에 있으면 별도의 소리로 발음된다. 이중모음 '**o**'는 특히 흥미로운 경우인데, 이는 두 개의 소리 **[uo]** 로 발음되는 단일 문자일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모음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것은 사용되는 단어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두 개의 모음이 있기 때문이다.

[1] 라트비아어에서는 'e' 소리가 좁고 넓은 의미에서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ㅔ'와 'ㅐ'와 매우 가깝다.

한국어에서 이중모음을 분류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초의 모음에 추가되는 소리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은 라트비아어로 옮겨질 수 있는 소리를 '**j**'로, 다른 것은 '**v**'로 더한다.

첫 번째 그룹과 그 전사는 아래에 정리되었다. 구성의 기본 공식은 '**모음 + 모음 ㅣ**'이다.

표 2. 한국어 이종모음의 라트비아어로의 전사

야	여	요	유	얘	예
ja	jo	jo	ju	je	je

두 번째 그룹과 그 전사는 아래에 정리되었다. 구성의 기본 공식은 '**모음 + 모음 ㅗ, ㅜ, ㅡ**'이다.

표 3. 한국어 이종모음의 라트비아어로의 전사

와	왜	외	워	웨	위	의
va	ve/vē	ve	vo	ve	vi/vī	ui/i/e

이러한 이중모음들을 라트비아어로 어떻게 적절히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것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양쪽 언어의 이중모음이 일치하는 소리 없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ui** 와 **ㅡㅣ**'를 예외로 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비슷할 뿐이다.

3) 자음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을 때 발생하는 소리들이다. 자음을 분류하는 전형적인 음성학적인 방법은 위치와 발음의 방식에 따른다. 보통 아래의 표로 정리된다.

표 4. 라트비아어 자음의 음성학적 도표

조음 위치 / 조음 방법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파열음	p b		t d		ķ [c] ģ [ɟ]	k g
파찰음			c [ts] dz [dz]	č [tʃ] dž [dʒ]		
비음	m		n [n]	ņ [ɲ]		n [ŋ]
마찰음		f v	s z	š [ʃ] ž [ʒ]	j	h

전동음				r		
설측음				l	ļ [ʎ]	

표 5. 한국어 자음의 음성학적 도표

조음 위치 / 조음 방법	입술	윗니 뒤쪽	센입천장	여린입청장	후두
파열음	ㅂ [p] ㅃ [p͈] ㅍ [pʰ]	ㄷ [t] ㄸ [t͈] ㅌ [tʰ]		ㄱ [k] ㄲ [k͈] ㅋ [kʰ]	
파찰음			ㅈ [tɕ] ㅉ [t͈ɕ] ㅊ [tɕʰ]		
마찰음		ㅅ [s] ㅆ [s͈]			ㅎ[h]
비음	ㅁ [m]	ㄴ [n]		ㅇ [ŋ]	
유음		ㄹ[ɾ]			

위에서 제시된 표는 그 동안 수집된 내용들을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논문을 쓸 때 이용할 수 있는 언어 자원으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일부 다른 변형을 제시할 수 있다.

위의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겹치는 범주가 많아 소리가 중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의 격음과 경음(**ㅋ, ㄲ**)과 라트비아어에서의 연자음(**ķ, ģ**)과 같이 일부 톡특한 소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리고 연음들은 두 언어에서 대응된다.

라트비아어에서 독특한 소리들인 '**dz**'과 **'dž**'이다. 이것들은 하나의 음가를 가진 것이지만 두 글자로 표기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한국어의 '**ㅈ**'과 '**ㅉ**'에 대응하지만 정확한 등가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트비아어에서도 마찰음' **f**, **v**, **j'**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j**' 소리는 한국어에서 단지 이중모음의 일부로 나타나는 반면에 '**f**, **v**,'은 다른 소리로 대체된다.

한국어에서 매우 독특한 소리로 간주되는 것은 '**ㄹ**'인데, 이것은 라트비아 사람들이 발음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라트비아 사람들이 '**l, ļ , r'**의 소리들을 매우 다르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한국어의 소리와는 다른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자음들은 단어에서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발음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표 6. 한국어 초성의 라트비아어로의 전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k	n	t	l/r	m	p	s/š	-	č/dž	č	k	t	p	h

표 7. 한국어 중성의 라트비아어로의 전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g	n	d	r	m	b	s/š	-	dž	č	k	t	p	h/-

표 8. 이중자음(된소리)의 경우

ㄲ	ㄸ	ㅃ	ㅆ	ㅉ
k	t	p	s	dž

라트비아어에서는 이러한 자음들을 이중으로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자음과 동일한 음가로 가정한다.

표 9. 한국어 받침의 라트비아어로의 전사

받침	발음	전사
ㄱ, ㅋ, ㄲ	ㄱ	k
ㄴ	ㄴ	n
ㄷ, ㅌ, ㅅ, ㅆ, ㅈ, ㅊ, ㅎ	ㄷ	t
ㄹ	ㄹ	l
ㅂ, ㅍ	ㅂ	p
ㅇ	ㅇ	ng/n[2]

3. 한국어 명사의 라트비아어로 전사된 구체적인 예들

이 장에서는 라트비아어로 옮겨지는 한국 명사의 실제의 예들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어를 라트비아어로 표기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는, 아직 출판물이 많지 않기

[2] 전사에 대한 합의는 아직 도달되지 않았다

때문에 기존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예는 많지 않다. 그러나 번역하기 힘든 문화와 관련된 몇 가지 단어의 예는 라트비아 대학에서 출간된 '라트비아인을 위한 한국어'라는 교재들과 라트비아에서 한국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보통 한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사물이나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과 언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어를 라트비아어로 번역하는 데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장소의 이름이다. 대부분의 대도시와 지명들은 이미 오래 전에 번역되었지만, 그것들은 현대적 번역체계에 맞지 않는다. 이 예들 중에서 원래의 발음에서 가장 동떨어진 것은 분명히 수도인 서울과 평양이지만, 선례를 따르는 역사적인 예들 때문에 라트비아어로 번역되는 방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표 10, 11. 문화에 관련 것과 도시명 전시의 예들

한국어	전사
김치	kimči
추석	Čusoks (Čusoka svētki)
비빔밥	bibimbaps/pibimbaps
삼겹살	samgjopsals
한복	hanboks

한국어	전사
서울	Seula
부산	Busana
인천	Inčhona
평양	Phenjana

라트비아어로 번역하는데에 있어서 특히 어려운 부분은 고유명사다. Atveide (영어 – rendition)[3]는 주로 라트비아어에서 사용되는 번역의 일종으로, 고유명사를 본래의 발음에 따라서 라트비아 문자로 표기하고 라트비아 문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라트비아어의 명사어미가 추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이름 '박지민'의 번역과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활용은 이름이 속한 사람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남성의 이름인 경우에는 라트비아인에게 'Paks Džimins'로 번역해야 하지만, 여성의 이름일 경우에는 'Paka Džimina'가 된다. 명사의 어미에는 남성(s, š, is, us)으로 간주되는 4 가지 유형이 있고 여성(a, e, s)으로 간주되는 명사 어미의 유형도 3 가지가 있다. 이러한 명사의 어미들은 라트비아어 문법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경우에 따라 명사들을 활용시키고 문장에 적합하도록 한다.

[3] 편리를 위해서 이 발표에서 전사라고 한다.

다음에 소개될 예들은 모두 매일 뉴스를 보도하는 라트비아 인터넷 미디어 사이트 "Diena"와 "TVNET"에서 찾은 것이다. 첫째, 현재 가장 널리 보도되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표 12. 한국어 이름 전사의 기준 유형과 필자의 제시 유형

날짜	뉴스 사이트	전사	한글	제안된 전사
14.12.2018.	Diena	Muns Džēins	문재인	Muns Džēins
25.02.2018.	Diena	Muns Džē Ins		
25.02.2018	Diena	Muns Jēins		
12.02.2018.	Diena	Mūns Džēins		
26.12.2018	TVNET	Muns Džēins		

이 단어는 미디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Muns Jēins'는 원래의 발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잘못 표현된 것이다.

표 13. 한국어 이름 전사의 기준 유형과 필자의 제시 유형

날짜	뉴스 사이트	전사	한글	제안된 전사
12.05.2018.	Diena	Kana Kjunhva	강경화	Kanga Kjonghva
10.10.2018.	Diena	Kana Kjunha		
11.10.2018.	Diena	Kana Kjonvha		
14.02.2018.	TVNET	Kjunva Kanga		
10.10.2018.	TVNET	Kana Genhva		
8.11.2018.	TVNET	Kana Kjunvha		

위에서 제시된 예는 한국의 외무부 장관의 이름인데, 특히 언론이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라트비아인들에게 더 혼란스러운 소리를 포함하고 있고 '강경화'라는 단어의 영어 표기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표 14. 한국어 이름 전사의 기준 유형과 필자의 제시 유형

날짜	뉴스 사이트	전사	한글	제안된 전사

9.03.2018.	Diena	Dujons Kims	김두연	Kima Dujona

비록 자주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성별에 따른 실수도 라트비아의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두연은 정치학 분야에서 연구원인데 라트비아 미디어 사이트에서 그녀의 논문의 하나에서 'Dujona Kima'이 'Dujons Kims'로 잘 못 쓰여졌 있다. 이것은 작가들의 주의력 부족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이름 차이가 나는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 사이에 정확하게 사람 이름을 번역하는 문제를 보여준다.

다음 예는 북한 이름에 관한 것이다. 소련과 북한은 지난 세기 동안 소련의 일부였던 라트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시아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러시아에서 얻어진 것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북한 이름들이 남한과 다르게 번역되었다.

표 15. 한국어 이름 전사의 기준 유형과 필자의 제시 유형

날짜	뉴스 사이트	전사	한글	제안된 전사
12.01.2018.	Diena	Kims Irsens	김일성	Kims Ilsongs
2.05.2018.	TVNET	Kims Irsens		
13.04.2019.	Diena	Kims Čenirs	김정일	Kims Džongils
27.04.2018.	Diena	Kims Čen Irs		
2.05.2018.	TVNET	Kims Čenirs		
18.04.2019.	Diena	Kims Čen Uns / Kims Čenuns	김정은	Kims Džonguns
18.04.2019.	TVNET	Kims Čenuns		

모든 북한 지도자의 이름들은 러시아어에서 그것들의 번역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표기들은 적어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한국어의 이름들은 그것이 가진 본래의 발음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영어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 사람의 이름들은 영문 전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여전히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사가 어떤 인물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한국어의 전사와 번역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며 나아가 교육 및 정부 차원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어져야 할 근거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4. 나오는 말 - 잘못된 전사가 학생 및 연구자에게 미치는 영향

먼저 명사나 고유명사를 잘못 번역하면 문화 무지를 드러내며 오해나 심지어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어의 명사를 라트비아어로 표기할 때 나타나는 오류문제는 한국어를 번역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교실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고 하다. 예를들면, 한국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국어 이름들이 가진 본래의 발음으로 사용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나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관찰해 왔다.

그 문제들 중 하나는 정확한 발음에 대한 영향일 수 있다. 학생들이 라트비아어로 표기된 이름만을 보고서 그 발음을 익히게 되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졸업논문을 쓸 때 학생들이 한국어에 통일 된 체계가없고 아직 교과 과정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번역 기술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은 고정될 수 있으면 한국어 학습의 질을 높이고 현재 라트비아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을 나아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언어교육과 번역분야의 동시적인 참여로 해결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먼저 라트비아 대학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표기법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며, 그 후에 일반 대중에게도 보급되기를 희망해 본다. 앞으로 한국학 연구가 점점 더 널리 퍼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권진 (2019), "라트비아 대학교 아시아학부 한국학 대학원 과정 특별 세미나 자료집" 라트비아 대학교.

일제 스케스테레 (2019), "라트비아어로 한국어 고유명사의 렌더링" 석사 논문, 라트비아 대학교.

Choo, M., O'Grady, W. (2003), "The Sounds of Korean: A Pronunciation Guid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Kim, J., Yoon, S., Lee, E. (2017) "Korean Pronunciation Guide.", Paju: Darakwon.

Fāters, H. (2010), "Ievads valodniecībā." Rīga: Zinātne.

Freimane, I. (1993) "Citvalodu īpašvārdu atveides principi. Valodas kultūra teorētiskā skatījumā", Rīga: Zvaigzne.

Laua, A. (1997), "Latviešu literārās valodas fonētika. 4., pārstr. un papild. izd.", Rīga: Zvaigzne.

Markus, D., Bonda Dz. (2014), "Ievads fonoloģijā.", Rīga: Zinātne.

Strautiņa V., Šulce Dž. (2004) "Latviešu literārās valodas fonētika, ortoepija un ortogrāfija.", Liepāja : LiePA.

이미지 자료

이미지 1. https://www.omniglot.com/writing/latvian.htm

이미지 2. https://www.korean.go.kr/hangeul/principle/001.html

이미지 3. Strautiņa V., Šulce Dž. (2004), "Latviešu literārās valodas fonētika, ortoepija un ortogrāfija." Liepāja : LiePA, 21 쪽.

이미지 4. 최권진 (2019), "라트비아 대학교 아시아학부 한국학 대학원 과정 특별 세미나 자료집", 라트비아 대학교, 69 쪽.

최신 언어 생활의 동향을 반영하기 위한 수업 방안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한국어 중급 수업을 중심으로-

예일대학교

임현성

I. 들어가며

본 수업 방안은 중급 수업의 일부로, 본교 한국어 과정에서 3 학기에 걸쳐 약 200 시간의 수업을 마쳤거나 이에 대응하는 선행학습을 완료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수업의 주대상은 한국 방문 경험이 없는 비 한국계 미국인 및 외국인 학습자로, 한국과 관련한 노출이 부족한 학습자에게 교재에서 학습할 수 있는 언어적인 지식 이외에 최근 언어 생활의 동향과 문화, 사회를 소개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이러한 여러 방면의 최근 동향을 학습자에게 소개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본 수업에서 유튜브 채널을 사용하기로 한 이유는, 현재 많이 사용하는 언어습관들이 잘 반영되어 있고 변하고 있는 문화나 사회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나 정규 방송의 경우, 해외에서의 접근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튜브 채널은 별도의 가입이나 구매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언제든지 수월하게 추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유튜브 채널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비속어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수업 자료로 선정 시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잘 고려해야 한다. 본 수업에서 사용한 유튜브 채널은 <자이언트 펭 TV:이하 펭 TV>로, EBS 에서 제작한 것이라 비속어가 적고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학교 수업에 사용하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언어 측면에서뿐 아니라 주제면에서도 매회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한국의 현재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와 사회를 소개하는 효과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II. 수업의 실제

펭 TV 를 사용한 수업은 수업의 본 교재(서강한국어 3A, 총 8 과)의 단원과 단원 사이에 배치해 총 7 회 실시하였으며, 학습자에게 추가적인 학습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성적과는 별도의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1. 수업 전 준비

1) 에피소드 선정

에피소드의 선택 시에 현재 한국의 여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점 외에도 학습자의 언어 수준, 학습자의 한국 이해 수준, 대학생이 흥미를 가질 소재 등을 고려하였고, 정기 구독자들만 공감할 수 있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등장인물이 과하게 등장하는 일부 에피소드는 제외하였다. 선정한 에피소드의 길이와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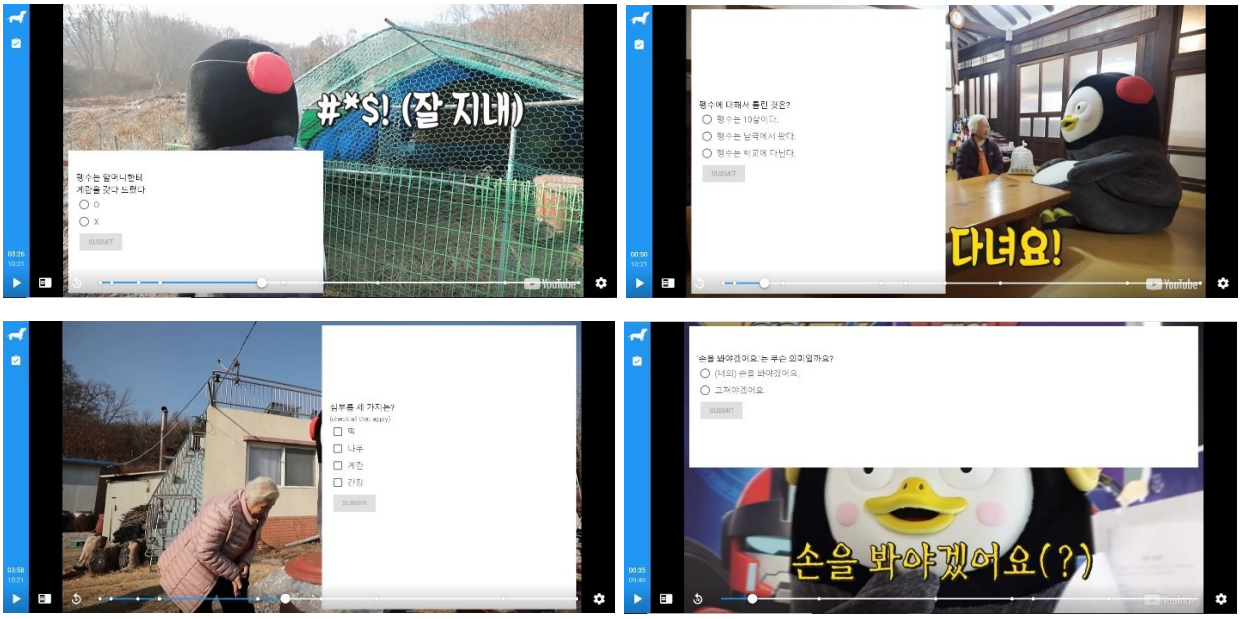
1 회차	Ep.85 [할머니들과 남극식 나이 먹어봤습니다] 10’50’’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날을 맞아 또다른 유튜버인 ‘할머니즈’를 찾아가 설날 인사를 드리고 떡국을 끓여 먹는 에피소드이다.
2 회차	Ep.43 [EBS 복지 클라쓰 전격 공개!] 9’50’’
	펭수가 펭 TV 제작진을 상대로 힐링할 수 있는 선물을 하는 에피소드이다. 한국 현대인들이 힐링을 위해 어떠한 것을 하는지 엿볼 수 있다.
3 회차	Ep.87 [펭력사무소-편의점] 9’08’’
	펭수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 첫번째 이야기로, 편의점의 기본 업무를 펭수의 체험으로 보여준다.
4 회차	Ep.88 [알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0’30’’
	펭수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 두번째 이야기로, 아르바이트가 실수를 만회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5 회차	Ep.건강지킴이 [펭수와 함께하는 손씻기와 기침예절] 2’28’’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 시점에 나온 손씻기와 기침예절에 관한 홍보 동영상이다.
6 회차	Ep.66 [화보 모델 펭수] 9’37’’
	패션 모델로 등장한 펭수 화보로 화제가 되며 완판되었던 잡지 화보 촬영을 담은 에피소드이다.
7 회차	Ep.28 [예술고 학생은 아크로바틱과 발레를 배운다고?! (feat. 고양예고)] 9’33’’
	고양예고를 방문한 펭수의 두 번째 이야기로, 연기과/문예창작과/무용과 수업에 참여하는 펭수의 체험을 담은 에피소드이다.

2) 동영상 편집

매회는 10 분 전후의 길지 않은 영상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가공하지 않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PlayPosit[1]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편집을 하였다. 짧은 영상이라 삭제한 장면들이 많지 않지만 주로 삭제한 장면은, 문화적인 오해를 사거나 불편할 수 있는 부분, 영상 전후로 본편과 관련 없는 부분, 학습자들의 흐름 이해에 방해가 되는 장면, 많은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능한 장면 등이 있다.

편집은 단순한 일부 삭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PlayPosit 을 이용하면 교사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질문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데, 간단한 OX 퀴즈나 객관식 질문, 혹은 단답형 주관식 질문을 영상 중간중간에 넣어줌으로 학습자의 내용 이해와 확인을 돕는다. 이런 질문의 추가는 학습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 속도감이 있는 10 분 전후의 동영상을 따라가는 데 급급하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볼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고, 편집한 파일을 수업 후에 학습자와 공유함으로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다시 시청하며 복습할 수도 있다. 질문의 형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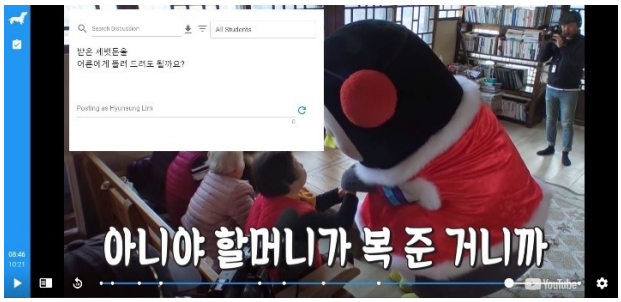
(1) 내용 이해를 돕는 내용확인 문제



학습자가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위한 평가의 목적이라면 영상이 끝난 뒤에 내용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겠지만, 본 수업에서는 영상이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가 영상을 잘 이해하면서 볼 수 있도록 중간중간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간단한 OX 형태의 문제나 객관식 형태의 문제를 통해 내용과 본 영상 이해에 기초가 되는 어휘들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관형 표현의 경우, 영상이 끝난 뒤에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 재시청하며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장면에서 간단한 질문의 형태로 설명해 주고 계속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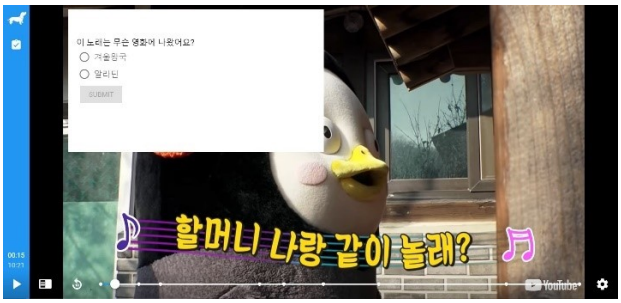
[1] PlayPosit 은 기존의 동영상을 잘라내거나 중간에 잠시 멈추고 질문 등을 삽입하는 형식으로 교사의 교육 목표에 맞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www.playposi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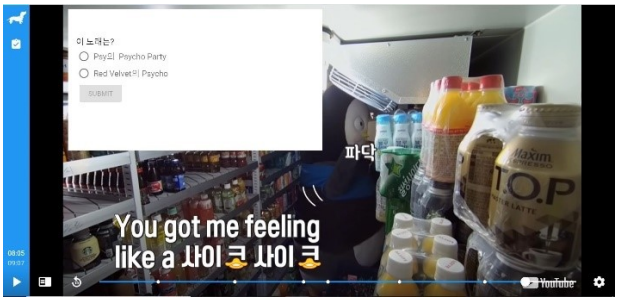
(2) 문화 요소 부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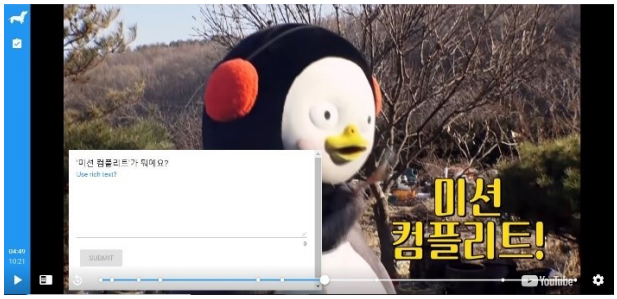
문화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영상이 끝난 후에 다시 되돌려 보며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장면에서 잠시 멈추고 설명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교사가 설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교사의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영상의 흐름이 끊어진다는 점에 있다. 크게 다뤄야 할 주제라면 영상 시청 전후에 따로 하는 편이 낫다.

(3) 흥미를 끌어내는 추측 문제





펭 TV 에는 대중문화를 패러디하여 재미를 추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학습자들도 눈치 챌 수 있는 부분들은 가벼운 질문의 형태로 확인해주며 영상에 대한 학습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겨울왕국'처럼 영어와 한국어 제목이 다른 경우에도 학습자에게는 흥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포 학습자나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와 달리, 본 수업을 수강한 학습자들은 한국식 영어 표현(콩글리시)를 읽거나 들은 후에도 영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 콩글리시를 인지하도록 했다.

2. 수업 진행

각 에피소드에 맞는 도입과 동영상 시청 후에는 어휘/표현 학습과 내용을 응용한 활동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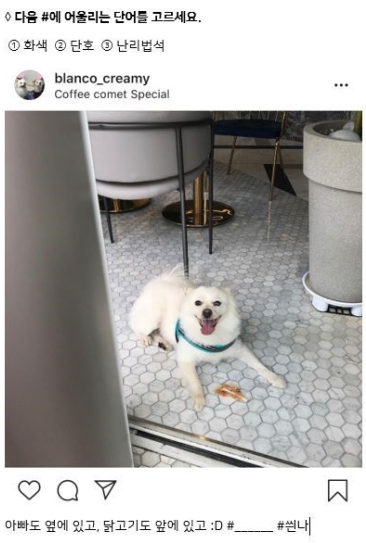
1) 어휘/표현 학습

펭 TV 의 영상에는 중급을 막 시작하는 학생들이 시청하기에는 새로운 어휘/표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어떠한 전략으로 어휘를 교수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했다. 본 수업에서는 내용 이해에 꼭 필요한 키워드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는 수업 도입 시, 혹은 영상 시청 중 PlayPosit 으로 추가된 질문에 포함해서 학습자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 이해 이상의 성취는 학습자 자율에 맡겼다. 영상 시청 후에는 이 수업의 원래 의도에 맞게 정규 수업에서 잘 다뤄지지 않지만 많이 사용되거나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선별된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였다. 새로운 어휘를 다 학습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가 미리 정한 목표 어휘를 위주로 의미와 사용 상황을 학습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했다. 다음은 각 회차에서 목표로 학습한 어휘와 표현이다.

1 회차	Ep.85 [할머니들과 남극식 나이 먹어봤습니다]
	급 방전 / 하얗게 불태우다 / 복사+ 붙여넣기 / 꾸벅 / 으쓱 / 힐끗 / 가만 있어 봐
2 회차	Ep.43 [EBS 복지 클라쓰 전격 공개!]
	손을 보다 / 심기 불편 / 떨떠름 / 흡족 / 불신 / 흔쾌 / 과연? / 진정한 휴식
3 회차	Ep.87 [펭력사무소-편의점]
	잡담 / 뿌듯 / 꾸깃 / 꼼지락 / 천진난만
4 회차	Ep.88 [알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다면 한다. / 됐어! 됐어! / 단호 / 화색 / 인정 / 난리법석
5 회차	Ep.건강지킴이 [펭수와 함께하는 손씻기와 기침예절]
	꼼꼼히 / 필수 / 딩동댕
6 회차	Ep.66 [화보 모델 펭수]
	마지못해 / 육성 터짐 / 위기를 기회로 / 이 바닥 / 힙 충만
7 회차	Ep.28 [예술고 학생은 아크로바틱과 발레를 배운다고?! (feat. 고양예고)]
	가긴 어딜 가 / 못 하는 거 아니고 안 하는 거 / 십년감수 / 어질어질 / 일사불란

선택된 어휘/표현의 대부분이 특정 상황에 사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 의미 설명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연습도 설정된 상황을 주었다. 특히 많은 어휘들이 SNS 에서 해시태그(#)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일반적인 어휘/표현 연습 외에 설정된 피드를 주고 적절한 해시태그를 달아 보는 연습을 하기도 하였다.

<6 회차 예>



<4 회차 예>

<7 회차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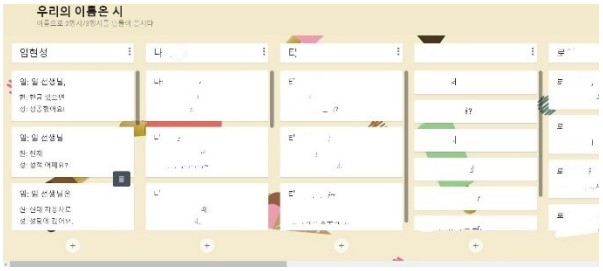
2) 활동

어휘와 표현 연습까지 마치고 난 후에는 영상의 내용들을 응용하여 종합활동을 했다. 활동은 최대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 연습으로 그치지 않게 구성해 보았다. 다음은 각 회차에서 한 활동이다.

1 회차	Ep.85 [할머니들과 남극식 나이 먹어봤습니다]
	영상 속 가마솥처럼 예전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2 회차	Ep.43 [EBS 복지 클라쓰 전격 공개!]
	영상 시청 전 자신이 생각하는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서 박스에 넣고, 수업 종료 전에 추첨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적은 방법을 뽑아 하루 힐링하기
3 회차	Ep.87 [펭력사무소-편의점]
	영상에서 펭수가 교육받은 것을 바탕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과 손님의 역할극

4 회차	Ep.88 [알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가(내가) ---한다면] 영상 속 참치삼각김밥 300 개 발주처럼 황당한 상황을 생각해 질문하고 대답하기 (VoiceThread[2] 사용)
5 회차	Ep.건강지킴이 [펭수와 함께하는 손씻기와 기침예절]
	미국 손씻기 홍보 문구 한국어로 번역하기
6 회차	Ep.66 [화보 모델 펭수]
	[This is me] 바꾸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은? (Padlet[3]사용)
7 회차	Ep.28 [예술고 학생은 아크로바틱과 발레를 배운다고?! (feat. 고양예고)]
	문예창작과 부분에서 펭수 이름으로 2 행시 짓기했던 것에 착안하여 반학생들과 교사의 이름을 이용해 2~3 행시를 짓기 (Padlet 사용)

<5 회차 예>



<7 회차 예>

[2] VoiceThread 는 음성 혹은 영상에 다른 이용자가 음성, 영상, 댓글 등으로 대답을 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Voicethread.com

[3] Padlet 은 마치 게시판처럼 여러 사람이 동일한 페이지에 자신의 글이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Padlet.com 비슷한 기능의 프로그램으로는 Google Doc 의 Jamboard 등이 있다.

3. 수업 후 활용

학습자들은 학기 전반에 걸친 과제로 SNS 에 Weekly Posting 을 하고 있었는데, 수업 중 연습에서 다뤘던 것처럼, SNS 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해시태그에 응용 가능한 어휘가 있다면 사용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 4 회차 에피소드에서 펭수의 애창곡인 그룹 거북이의 <비행기>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각자에게 의미가 있는 노래를 학기 후반부 프로젝트의 하나로 소개해 보았다. 한국 노래로 한정 짓진 않았으나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하였다.

III. 나가며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 TV>를 정규 수업의 일부로 활용해 본 결과, 즐겁게 한국 현대 사회의 일부를 간접 체험하는 문화 교육의 효과와 관용어, 콩글리시, 유행어, 사자성어, 의성어·의태어 중에서 정규 한국어 교재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으나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학습하는 언어 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펭 TV 의 진행 형태가 일반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어서 평소에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보던 학습자와 그렇지 않던 학습자의 집중도의 차이가 있었다. 애드립이 많은 것도 일부 학습자들에게는 재미를 더해 주었으나 일부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PlayPosit 을 이용한 편집은 그러한 학습자가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게 했고, 교사의 개입이 이미 영상 안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 수업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PlayPosit, VoiceThread, Padlet 등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사용방법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교수와 학습의 효율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도구로, 온라인 수업이 면대면 수업을 대체해가고 있는 현 상황과 온라인으로 세상을 접하는 것에 익숙한 학습자를 고려할 때 학습 의욕을 높이고 성공적인 학습을 이끌어내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중급 학습자들과 수업을 하면서 학습자가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때까지 여러 방법을 동원해 동기를 부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큰 몫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data and students' reading and listening test outcomes.

Yusun Jung

DLIFLC

Monterey, California, US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reading and listening test outcomes and self-reported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As important factors for classroom performance, five components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motivation, are considered as predicting variables based on the research of Pintrich, P. R., & DeGroot, E. 1990. In this study, 16 Korean learners participated in MSLQ and 576 outcomes of reading and listening tests were collected. While there was a significant rate of linear change in the test outcome on average, the random variation around the linear time slope indicated that not every student was expected to change in the same way over time. After adding five predictors to the final unconditional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self-efficacy component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reading and listening test outcomes. Intrinsic value is positively related to listening test outcomes, whereas cognitive strategies was negatively related to listening test outcomes.

Keywords: Korean language, reading test, listening test,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Multi-level Model for Growth, PROC Mixed,

Introduc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Korean reading and listening test outcomes and self-reported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In second language learn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cognitive learning style and effective areas ar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successful language learning. Pintrich and De Groot (1990) claimed that five components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motivation are important aspects of successful academic performance in the classroom. These components involve (1) self-regulation efficacy; (2) intrinsic value; (3) self-efficacy; (4) test anxiety, and (5) cognitive strategies that students use to learn, remember, and understand the material. First, self-regulated learning includes students' metacognitive strategies for planning, monitoring, and modifying their cognition (Pintrich & De Groot, 1990). Students'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ir effort on classroom academic tasks have been proposed as another important component. Second, cognitive strategies that students use to learn, remember, and understand has been found to promote active cognitive participation in learning and result in high levels of achievement (Pintrich & De Groot, 1990). Third, self-efficacy refers to students' beliefs that they are able to perform the task and they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performance. Pintrich & De Groot (1990) claimed that individual motivational orientation and belief are relevant to cognitive engagement and classroom performance. Their study suggested that students who believe that they are capable of engaging in more metacognition use more cognitive strategies and are more likely to persist at a task than students who do not believe they can perform the task (Pintrich & De Groot, 1990). Fourth, students who are intrinsically motivated and have goals of mastery, learning, and challenge, as well as beliefs that the test is interesting and important, will engage in more metacognitive activity, more cognitive strategy use, and more effective effort management (Pintrich & De Groot, 1990). Lastly, although previous research shows that the relation between test anxiety and effective learning is not straightforward, test anxiety

at a language learning context, which is students' affective or emotional reactions to the task, has been shown to be related to language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ive components of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and student performance in Korean language classroom. In this study two research questions are addressed:

1. What is the overall pattern of students' unit test outcomes from unit 1 to unit 16?
2. How do the five subscales of MSLQ impact the change of students' test outcomes?

Method

Subjects: The sample includes 9 students of beginning level of Korean in an intensive and rigorous learning environment. The Korean language course students take offers an intensive curriculum, starting from the ILR (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 level 0 and finishing with level 3 within 65 weeks. According to the ILR website, ILR level 0 refers to no practical ability to speak, read, nor listen to the target language and ILR level 3 refers to the ability to speak, read, and listen within a normal range of speed and with almost complete comprehension (ILR).

Students are required to attend the class every day from 8 am to 3 pm, taking 6 or 7 hours of lesson. After finishing 65-week course, students must take a high-stakes test. In order to pass the test, students should receive at least level 2 and above on reading and listening and 1+ on speaking. The test include reading, listening, and speaking. In this study, 288 outcomes of reading and listening tests are used. All the participants except one student have experience of learning Korean before and 7 students have either graduated from or attended a college for 1 to 2 years. Two students have not attended a college. The age of students is from 20 to 27 and one student is 40. Among them 3 students are female and 6 students are male.

Measures:

The students responded to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see Appendix) that includes 44 items on self-efficacy, intrinsic value, test anxiety, cognitive strategy use, and self-regulation. Students were instructed to respond to the items on a 7-point Likert scale in terms of strategy use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Items were adapted from the Pintrich and Groot's study (Pintrich & Groot, 1990). Analysis of the motivational items revealed three distinct motivational factors: Self-Efficacy, Intrinsic Value, and Test Anxiety. The Self-Efficacy consisted of nine items regarding perceived competence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class work. Intrinsic Value scale was constructed by taking the mean score of the students' response to nine items concerning intrinsic interest in learning Korean and perceived importance of course work as well as their preference for challenge and mastery goals. Four items concerning their worries about tests and cognitive interference on tests were used in the Test Anxiety scale. In addition, two cognitive scales were constructed: Cognitive Strategy Use and Self-Regulation. The Cognitive Strategy Use scale consisted of 13 items pertaining to the use of rehearsal strategies, elaboration strategies such as summarizing and paraphrasing, and organizational strategies. The last scale, labeled Self-Regulation, was constructed from metacognitive and effort management items. The Self-Regulation scales include items on metacognitive strategies such as planning, skimming, and comprehension monitoring and effort management strategies such as students' persistence at difficult or boring tasks.

Academic performance was measured by collecting data on students' 16 reading and listening test outcomes. The distribution of grades followed an individualistic, criterion-referenced system that allowed all students the possibility of receiving a 100 on a test. The multilevel model for growth and SAS PROC MIXED was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Read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change in reading test outcomes across 16 occasions were examined

with multilevel model using maximum likelihood within SAS PROC MIXED, in which occasions are modeled as nested within persons. An empty means, random intercept model was first estimated to partition the variation in outcomes of reading scores. The inter-class correlation is 0.009, indicating that 0.9 % of the (average mean reading test outcome) variance was due to between person mean difference, whereas 99.1 % was due to within person residual variation over time. It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0. The expected reading test outcome on average over time was estimated as 88.06 (M=88.06, SD= 10.73, range=41 to 100). The significance of individual fixed effects was tested by their Wald test p-values, whereas the significance of a set of multiple fixed effects or of new variance model parameters was tested by the ML -2ΔLL between nested models as evaluated by the difference in the model degrees of freedom. A two-level empty means, random intercept model of time nested within-person initially specified and indicated that 98.3% of reading test outcomes variance was at the within-person level and 0.9% of the variance was between-persons and 0.8% of the variance was the residual variance.

The result of the first question was generally as expected; 98.3% of variance was due to individual differences between-person in reading test outcomes. The reading test outcome is expected to decrease from a predicted value of 80.09 at the first unit test by –1.77 per test. The predicted reading outcomes for the change over time is shown in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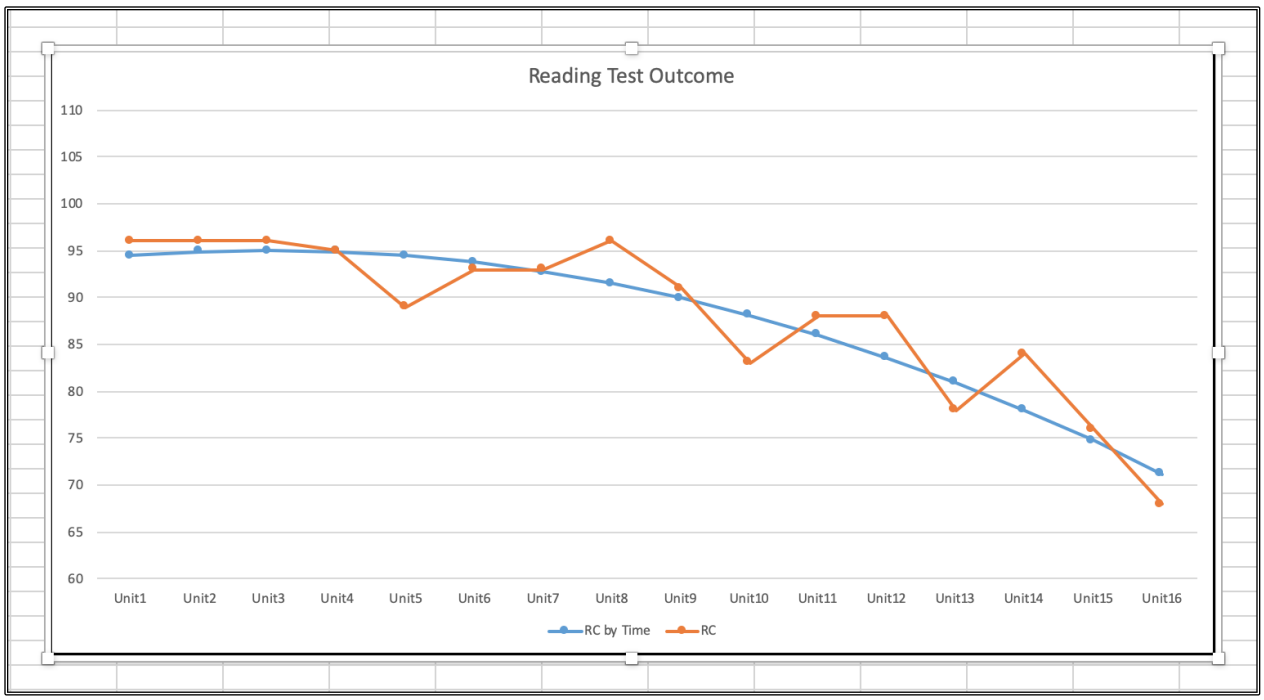


Figure 1. The predicted reading outcomes for the change over time

Then, the mean of 5 components of MSLQ scores on changes of test outcomes was added to the unconditional fixed time random intercept model. Effects of MSLQ components on the intercept and on the linear slope in test outcomes result in significantly better model fit, ($-2\Delta LL(\sim 5) = 102.9$, $p<.001$). Among the simple main effects of 5 components of MSLQ, only Self-Efficacy effect of 1.57 indicated a significant increase in reading test outcomes ($\gamma_{02(efficacy)} = 1.57$, $p=.0005$). Overall, these effects of occasions accounted for 47 % of the variance in test outcome.

The predicted reading outcomes after controlling for the change over time and Self-efficacy components of MSLQ are shown in Figure 2. Also, model fit and results for the five components of MSLQ Model for the change over time for reading and listening is shown in 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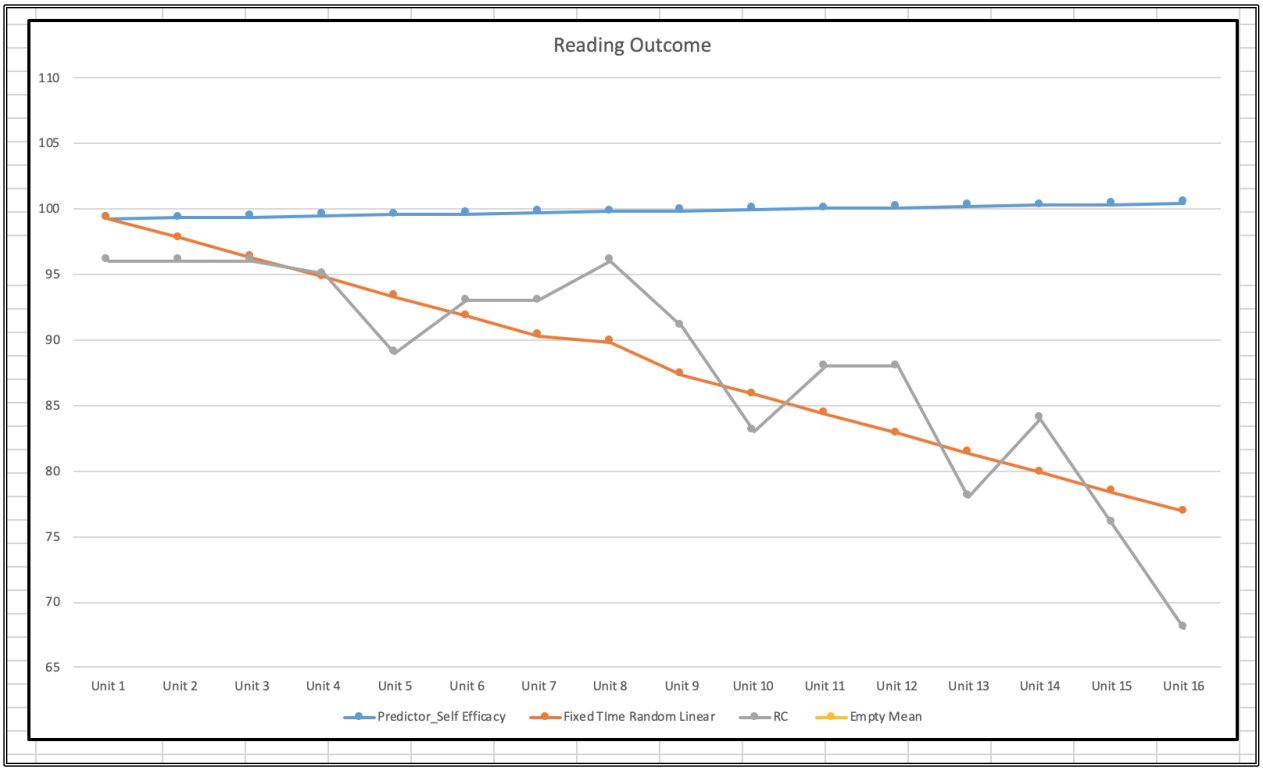


Figure 2. The predicted reading outcomes after controlling for self-efficacy component and the change over time.

Listening

An empty means, random intercept model was first estimated to partition the variation in outcomes of listening test. The inter-class correlation is 0.06, indicating that 6% of the (average mean reading test outcome) variance was due to between person mean difference, whereas 94% was due to within person residual variation over time. It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0. The expected reading test outcome on average over time was estimated as 79.5 (M=79.5, SD= 13.16, range=39 to 100).

Following the empty model, a fixed time random intercept model was then estimated. The addition of a fixed time random intercept resulted in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model fit, (-2ΔLL(~2)=70.2, p<.001.), indicating there was a significant individual variability in intercept change in

test outcome. The listening test outcome is expected to decrease from a predicted value of 92.25 at the first unit test by –1.7 per test.

Thus, based on comparison model fit, the fixed time random intercept model was the final unconditional model for time. Final model parameters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The fixed intercept of 92.25 is the expected listening test outcome at the first test, with a 95% random effects confidence interval of 85 to 100 across persons. The fixed linear slope of -1.7 is the expected linear rate of change per occasion in listening test outcome at the first test. Thus, overall, the rate of change in test decreased significantly over time on average, and there was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 in the extent to which this occurred. Figure 3. shows the predicted change of listening test outcomes before and after adding MSLQ compon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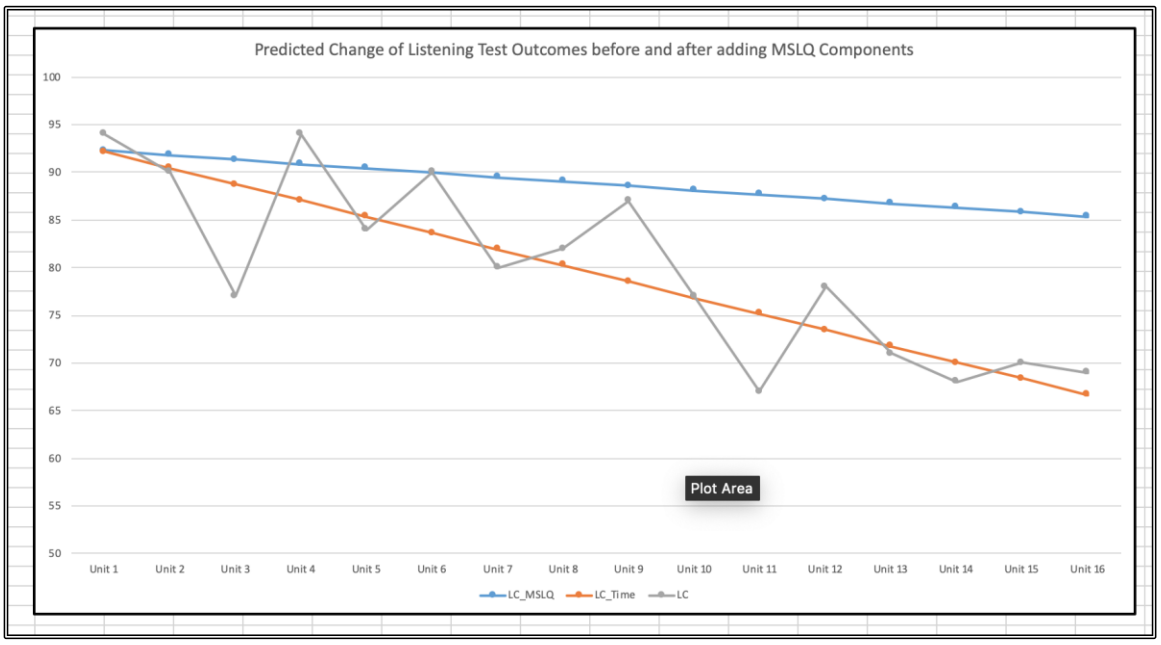


Figure 3. Predicted LC Test Outcomes before and after adding significant MSLQ Components.

Also, model fit and results for the five components of MSLQ Model for the change over time for reading and listening is shown in Table 1.

Table 1.1 Model parameters for the five components of MSLQ and for the change over time
Bold values are p<.05

Parameters		Reading			Listening		
	Term	EST	SE	p <	EST	SE	p <
Model for the Means							
Intercept (reading / listening outcome)	γ00	**99.23**	1.24	**<.0001**	**92.25**	1.54	**<.0001**
Linear Time slope (time=0)	γ10	**-1.49**	0.14	**<.0001**	**-1.7**	0.18	**<.0001**
Intrinsic Value	γ01	0.72	1.84	0.7	5.57	2.3	**0.016**
Self-Efficacy	γ02	1.57	0.44	**0.0005**	1.24	0.55	**0.025**
Test-Anxiety	γ02	0.33	0.22	0.13	-0.5	0.27	0.065
Cognitive Strategy Use	γ02	-1.74	1.14	0.13	**-4.55**	1.43	**0.002**
Self-Regulation	γ02	0.43	1.11	0.7	**1.72**	1.39	0.22
Model for the Variance							
Random Intercept Variance	τ2U0	**0**	.	.	**0**	.	.
Linear Time Slope Variance	τ2U1	**59.58**	4183466	0.5	**93.12**	11.09	**<.0001**
Residual Variance	σ2e	**0.95**	4183466	0.5	**0.99**	0	.
Total R2		0.4			0.47		
ML Model Fit							
# of parameters		10			10		
-2LL		999.5			1063.1		
AIC		1018			1081.1		
BIC		1019			1082.8		

Table 1. Model Fit and Results for the Five Component of MSLQ Model for the Change over Time

Overall, these effects of occasions accounted for 47% of the variance in test outcome. The results of the final model suggest that motivational components (intrinsic value and self-efficacy) a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related to student listening test outcomes. ($\gamma_{01(intrinsic)} = 5.57$, p=.01; $\gamma_{02(efficacy)} = 1.24$, p=.03). Cognitive strategy use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related to listening test outcomes ($\gamma_{03(cognitive)} = -4.55$, p=.002). That means, when a student reported 1 point more of intrinsic motivational value than the average points, the student is expected to perform 5.57 point better than the average test outcome of the class. Likewise, when a student reported his or her self-efficacy component 1 point more than the average of the class, the student is expected to perform 1.24 points better than the average test outcome of the class. On the other hand, when a student reported his or

her use of cognitive strategy use 1 point more than the average use of the class, the student is expected to perform 4.55 points worse than the average test outcome of the class.

Discussion

The results provide an experimental base for the specification of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differences in students' motivational orientation and their cognitive engagement and Korean language performance. The motivational components and students' cognitive engagement were linked in an important way to students' language performance in the assessment. Among the motivational components, self-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to both students' reading and listening academic performance. Bandura (1977) defined self-efficacy as "an individual's judgments of his or her capabilities to organize and execute courses of action required to attain designated goals." Self-efficacy affects an individual's choice of activities, efforts, and persistence. People who have a high sense of efficacy for accomplishing a task work harder and persist longer when they encounter difficulties than those who doubt their capabilities (Schunk, 1991).

The finding of this study that students who believe they were capable significantly performed better in Korean language tests suggests that self-efficac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Korean proficiency development. Thus, instructors need to provide students with positive feedback such as 'you can do it', so students raise their expectance for their own performance. Once a strong sense of efficacy is developed, a failure may not have much impact (Schunk, 1991).

In addition, students high in intrinsic value were more likely to perform better at the listening test. It seems that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students listening performance. Many studies confirmed that intrinsic value appears to encourage students' use of cognitive strategies (Lyke & Young, 2006). This study suggests that intrinsically motivated students are most likely to process course materials successfully. Students who employ cognitive strategies are likely

to be more engaged with course contents and produce better understanding of course material (Lyke & Young, 2006).

However,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gnitive strategy use for learning Korean seems to be a negative predictor of listening exam performance. Students who reported that they used cognitive strategies a lot for learning Korean performed worse at the listening test than students who reported that they used less cognitive strategies. Further study needs to observe objectively what strategies students actually use and what kind classroom environment for learning instructors provide. Test anxiety and self-regulation were not significant predictors for neither reading nor listening test outcomes.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these findings. First, the number of subjects is small, only 9 student responses were used in this study. Second, all the student motivation and cognitive components were measures with a self-reported instrument. Self-reports can be used effectively to measure student perceptions of motivation and cognitive engagement, but the results need to be generated with other measures, such as educational background information, structured interviews, or data collected from homework (Pintrich,1990). It seems clear that there are other factors implicated in student language performance in the test. For example, students' prior knowledge about society, culture, and history of Korea was not assessed, yet they are deeply related to language performance, and they potentially interact with cognitive and metacognitive strategy use. Clearly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multivariat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students' motivational orient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s well as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o-cultural knowledge. Furthermore, more research is needed to find out critical factors which are likely to improve students' listening test outcomes.

In summary, the results provide valid empirical evidence for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components of motivational and cognitive strategy use in academic performance. Students beliefs about

their capability to perform classroom tasks and tests are closely tied to their actual performance. Teachers need to integrate the motivational component in our models of classroom learning.

References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Lyke, Jennifer A.,& Young, Allison J. K. (2006). Students' Perceptions of Classroom Goal Structures and Reported Cognitive Strategy Use in the College Classroom.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7 (4), 477-490

Schunk, Dale H. (1991)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 (3 & 4), 207-231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ILR. 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 https://www.govtilr.org/Skills/ILRscale4.htm